

# Guideline for CTLS Applicants



CENTER FOR TRANSNATIONAL LEGAL STUDIES LONDON



## 0. 서언

- 이 글은 CTLS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많았으나 너무나 정보가 부족하여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던 개인적인 경험에서 비롯하여,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을 후배님들이 저와 같은 낭비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작성하였습니다.
- 이 글은 2014학년도 2학기 파견 경험 및 2016년 3월의 시점을 기준으로 초안이 작성되었습니다.
- 이 글에 대한 소유권, 일체의 지식 재산권, 기타 모든 권리는 작성자에게 속합니다. 단, 본문에 삽입된 이미지에 대한 권리는 전적으로 해당 권리보유자에게 있습니다.
- 작성자는 이 글에 기재된 내용의 정확성을 담보하지 않으며,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특히 학제 및 학교 행정과 관련된 부분은 수시로 변동되는 사항이므로 이 글의 내용만을 신뢰하지 마시고 반드시 학교 측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순수히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구성원들에 의한 사용만을 위하여 작성하였고 그 외의 자에 의한 열람과 배포 등 일체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상업적 용도가 아닌 이상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구성원이라면 누구든 자유롭게 열람, 편집 및 재가공할 수 있으나 변경 또는 추가된 부분은 그 내역을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개요

## Q. CTLS는 무슨 프로그램입니까?

CTLS는 Center for Transnational Legal Studies의 약어로서, 21세기의 서로 다른 국가간 법체계와 문화의 맥락 속에서 법을 이해하는 법률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미국의 Georgetown Law School을 중심으로 9개의 로스쿨 및 법학대학<sup>1</sup>이 연합하여 창설한 국제 법학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전세계의 총 28개 로스쿨 및 대학교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동북아시아에서는 연세대학교 로스쿨을 포함해서 중국의 2개 대학(북경대, 인민대)과 싱가포르국립대학 총 4개의 학교만이 Partnership을 맺고 있습니다.

## Q. CTLS에 참여하면 어떤 기관에 소속됩니까?

CTLS는 단순한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통상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외부인'으로서 외국 학교의 학생들에 섞여 그들이 수강하는 수업을 함께 듣는 것일 뿐이지만, CTLS는 위에서 말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참가 학생들에게만 초점을 맞춰 별도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는 학생에게는 단순히 하나의 교육기관에 소속되는 것이 아니라 몹시 복잡한, 굳이 구분하자면 총 3가지의 학적이 부여됩니다.

(1) Georgetown Law School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

<sup>1</sup> The Dickson Poon School of Law, King's College London (UK)

ESADE Law School(Spain)

Hebrew University of Jerusalem (Israel)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Singapore)

University of Fribourg (Switzerland)

University of Melbourne (Australia)

University of Torino (Italy)

University of Toronto (Canada)

전체적인 입학 및 성적처리 등의 학사과정은 미국의 Georgetown Law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법학DB인 Westlaw의 (Georgetown Law School 학생으로서의)이용권한을 가지며 그에 부속된 Twen이라는 하위 페이지를 통해 Reading 자료 열람이나 과제 제출 등을 할 수 있습니다(예컨대 연세포탈이나 YSEEC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적확인 역시 조지타운 학적 프로그램에서 이뤄집니다. 또한 조지타운 학생들이 의무로 가입해야 하는 유학생 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비용 100달러 정도).

## (2) King's College



### The Dickson Poon School of Law

영국에서는 런던의 King's College(엄밀히는 King's College 내의 법학 단과대인 'Dickson Poon School of Law')의 소속 학생이 됩니다. King's College(이하 'King's'로 약칭)의 학생증을 부여받고, King's College의 학교 건물 및 시설(ex. Maughan Library)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King's를 비롯하여 런던에 있는 대학들 - UCL(University College London), University of London(SOAS, Birkbeck등이 속함), LSE(런던정경대학) 등은 연합형태로 묶여있기 때문에 타교의 학생활동(예컨대 학생을 위한 요가나 헬스 프로그램, 학생커뮤니티)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Maughan Library의 정경, 영화 다빈치코드 등이 이 곳에서 촬영되었다]

(3) CTLS, London



또한 CTLS 프로그램 그 자체의 Alumni가 됩니다.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곳은 King's 건물  
물이 아니라 CTLS 프로그램만을 담당하는 사무실 및 강의실이 위치하고 있는 Swan House<sup>2</sup>라는  
빌딩으로, King's의 main building인 Strand Campus에서 15분 정도 떨어져있습니다. 이 곳에 CTLS  
프로그램의 Faculty Members가 상주하고 있으며, 수업의 절반 정도는 이 곳에서 이뤄집니다.

### Q. 어떤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9개의 Foundation 멤버를 포함해서 총 28개의 대학 및 로스쿨(각국의 학제에 차이가  
있으므로 학부생과 석사과정의 혼재되어 있음)이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멤버구성에 계속해서 변동  
이 있으며 2014년 기준 (Foundation 멤버를 제외한) Partnership 스쿨은 총 14개입니다<sup>3</sup>. 정식으로  
확인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Foundation 멤버 스쿨 출신 학생들의 TO가 일반 Partnership 스쿨보다

---

<sup>2</sup> 37-39 High Holborn London WC1V 6AA United Kingdom

<sup>3</sup> Amsterdam Law School (The Netherlands)  
Bucerius Law School (Germany)  
Católica Global School of Law (Portugal)  
Diego Portales University (Chile)  
Free University of Berlin (Germany)  
Moscow State University (Russia)  
Peking University School of Transnational Law (China)  
Pontificia Universidad Javeriana (Colombia)  
Renmin University of China Law School (China)  
Tecnológico de Monterrey (Mexico)  
Universidad de los Andes (Colombia)  
University of Auckland (New Zealand)  
University of Liège (Belgium)  
Yonsei University Law School (South Korea)

큰 듯 하며, 따라서 북미와 남유럽, 호주, 싱가포르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수의 학생들이 참여합니다. 일본이나 대만, 홍콩과 같은 주요 동북아 국가에서는 참여학생이 없고 중국의 경우에도 그렇게 많은 학생을 보내지 않는지라 아시아인의 수가 상당히 적고, 그나마도 대부분이 싱가포르인입니다. 저의 경우엔 홍콩계 호주인, 일본계 호주인, 인도계 싱가포르인 등이 소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학생이 Anglophone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영어의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영어에 상대적으로 약한 한국 학생으로서는 힘들수도 있겠지만, 반면에 고급 영어를 배우기에는 좋은 환경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보통 중북유럽국가 출신 학생들의 영어실력이 몹시 우수하고, 이탈리아나 스페인, 포르투갈 같은 남유럽 학생들의 경우 Speaking이나 Writing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 **Q. 어떤 교수들에게 수업을 듣게 됩니까?**

모든 교수는 CTLS 프로그램 참여대학에서 돌아가며 선발되며, 저의 경우에는 Dickson Poon을 포함하여 Georgetown, Amsterdam, Melbourne, Torino, Toronto, Chile 대학 등의 출신 교수들로 faculty member가 구성되었습니다.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국가 출신 교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최고수준의 언어를 구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수업을 이해하기에는 더 쉬운 경우도 있습니다. 사용하는 어휘나 문법의 수준이 단순해지기 때문입니다.

### **Q. CTLS에서 이수한 학기와 학점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CTLS에서의 한 학기는 연세 로스쿨(이하 '본교'로 약칭) 에서 정규학기를 이수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중도에 휴학하거나 하지 않는 이상 보통의 다른 동기들과 같이 3년만에 졸업할 수 있습니다.

CTLS에서의 최대수강학점은 필수수강과목 5학점을 포함하여 15학점 이상입니다만<sup>4</sup> 본교에서 이수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것은 최대 15학점까지만 가능합니다. 특별히 대체과목인정신청을 하지 않는 한 개별적인 수강과목명과 성적은 본교에서의 성적표에 드러나지 않고, 수강한 모든 과목은 졸업 요건 중 '심화'과목군으로 분류되어 처리됩니다.

또한 Grade Curve 등이 본교와 전혀 다르기 때문에, Fail에 해당하는 성적을 받지 않는 한 단순히

---

<sup>4</sup> 정확한 최대수강학점이 자료 소실로 확인되지 않고 있는 바 양해 부탁드립니다

졸업학점에만 포함될 뿐 평량평균에는 산정되지 않습니다(P/NP수업으로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 Q. 대체과목인정신청이란 무엇입니까?

정확히는 '해외 파견대학원의 학점인정'이라는 명칭으로 학칙에 반영되어있습니다. 관련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점인정안내>

1. 해외 파견대학원의 학점인정은 학칙 제53조(교환학생 학점인정)에 의거 이수한 성적표를 첨부하여 법학전문대학원 교학부원장에게 지도 및 승인을 받은 후 행정팀에 제출한다.  
(파견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2. 파견대학원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우리대학원에서 개설한 과목의 교과내용이 유사하고 학점이 같거나 높은 경우 교학부원장의 확인을 거쳐 과목인정 받을 수 있다.
3. 학점인정에 따라 인정된 학점은 학칙 제41조에 따른 필수과목군 및 기반과목군의 최소이수학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4. 파견대학원에서 이수한 과목과 유사한 과목이 우리대학원에서 개설되지 않은 경우 교학부원장의 확인을 받아 심화과목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5. 대체 인정받은 과목을 본교에서 다시 수강하면 인정과목 및 학점이 취소된다.
6. 파견대학원에서 이수한 성적은 GPA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수과목 및 대체인정 받은 과목은 성적증명서에 표기 되지 않는다.
7. 학점인정원은 제출 후 수정, 변경이 불가능하며 졸업요건에만 반영된다.

요약하자면, 교환학생 프로그램 파견대학(CTLS 포함)에서 수강한 과목 중 본교에서 개설되는 수업과 내용이 유사하고, 해당 수업의 학점이 같거나 높은 경우 본교 개설 수업을 들은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제도의 장점은 졸업요건 중 "국제/비교 영역과 기초/연계 영역의 수업을 각 3학점 이상 수강할 것"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1학년때는 수강신청 자체가 불가능하고 3학년때는 변시와 직접 관련된 과목을 수강하는 것만으로도 벅차다는 것을 고려할 때, 해당 영역의 수업을 수강할 수 있는 기회는 2학년 시기로 한정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다 한 학기를 파견대학에서 보내게 되면 남은 한 학기 동안 두 영역, 총 6학점의 수업을 반드시 수강해야만 하는데 이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CTLS에서 개설되는 수업 중에는 분명히 본교에서 개설되는 것과 유사한 수업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국제법, 중재, EU법, 미국법, 환경법 등 국제적으로 공통되고 이슈가 되는 큰 주제들이 그렇습니다. 그런 수업들 중 국제/비교 혹은 기초/연계로 분류되는 과목을 수강한 뒤 본교에 돌아와 학점인정을 신청하면, 본교에서 수업을 들은 것과 같이 인정되어(그렇다고 평량평균에 포함되는 것

은 아닙니다) 졸업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으므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할 점이, 해당 과목이 국제/비교 혹은 기초/연계과목군인 동시에 '기반'과목군에도 해당한다고 하여도 기반 과목군의 수업을 수강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위 규칙 3조 참조). 따라서 '기반 과목군 15학점 이상 취득'의 졸업요건은 별도로 갖추어야 하는 점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학부장<sup>5</sup>을 담당하시는 교수님께 사후 허가를 받아야만 인정되므로 가급적 수강신청(2학기 파견을 기준으로 7월 경에 있었습니다) 전에 교수님을 찾아 뵙고 미리 확인을 구해두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 **Q. CTLS를 이수하면 별도의 학위를 취득할 수 있나요?**

CTLS는 정규 학위 과정이 아니므로, 학위취득과는 무관합니다. 학위 취득을 위해서는 미국의 로스쿨에서 1년의 교환학생과정을 거치셔야만 LLM자격을 취득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sup>5</sup> 2013년에는 심영 교수님, 2014/15년에는 한상훈 교수님

## 2. 입학

### Q. 입학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이 필요합니까?

연세로스쿨은 CTLS와 Partnership 협정이 체결되어있기 때문에, 복잡한 입학허가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삼아 말씀드리자면 Georgetown Law School에서는 매년 여름 King's에서 계절학기수업을 열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CTLS와 흡사하지만 다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일정한 공인 영어시험 성적과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원본, 레커멘데이션 레터등의 각종 서류등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최종적으로 입학허가를 기다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만 국제화추진단장 교수님<sup>6</sup>과 면담을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과정은 필요한데, 외국대학 재학 경험이나 우수한 공인 영어 성적 등이 있으면 단순한 면담으로 끝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별도의 심사과정이 포함될 것입니다(저의 경우는 한 시간 정도 교수님과 영어로 질답을 하고 간단한 Writing 시험을 봤습니다).

이를 통과하여 학교에서 추천을 받으면 Georgetown Law School의 국제화프로그램 웹사이트<sup>7</sup>에 필요한 서류(재학증명서, 여권 스캔본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공인영어성적도 요구하지 않습니다)를 제출하고, 예외적인 결격사유가 없는 한 문제없이 입학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해당학기의 전 학기 초에 전형이 이뤄지기 때문에, 참여를 하겠다고 결정한 학생은 서둘러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저의 경우 3월 말에서 4월초 정도가 신청기한이었고, 그 후 서류를 제출하고 5월 말 정도에 어드미션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 Q. 수업료는 어떻게 됩니까?

Tuition Fee의 경우, 조지타운이나 CTLS측에 따로 납부하는 비용은 없고 우리학교의 등록금을 납부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다만 학교에서 국제화프로그램 진흥을 위해 장학금을 부여하고 있는데, CTLS참여 직전학기의 평균평군이 3.0을 넘으면 등록금의 100%를, 3.0을 넘지 못하면 50%를 지원받습니다. 만약 50%만을 지급받은 경우라도 이 때는 별도로 왕복항공권 대금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

<sup>6</sup> 기존에는 김준기 교수님이었으나, 2016. 3. 현재 공석

<sup>7</sup> <http://www.law.georgetown.edu/academics/academic-programs/transnational-programs/index.cfm>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등록금 100%지원을 받은 경우 항공권대금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장학금은 등록금의 100%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지 생활비용 정도만 부담하기 때문에 비용측면에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프로그램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런던의 물가는 세계 최고수준이므로 생활비가 만만치는 않습니다.)

### 3. 영국생활

#### 1) 생활전반

##### Q. 어디에서 거주하게 됩니까? 기숙사가 있나요?

런던의 거주문제는 CTLS측에서도 난색을 표할 정도로 엉망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건물들은 고품스럽고 깔끔하게 정렬되어있지만 도시계획에 따른 개발제한에 의해 건물내부는 낡고 부실하며, 그럼에도 방세는 연희동 원룸촌의 서너 배에 달합니다. 게다가 주요 건물들이 위치한 곳인 Zone1(런던의 최종심지)은 거주지역이 아닌터라 집 자체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CTLS측에서는 Liberty House라는 학생전용 Residence(학교에 딸린 기숙사가 아니라 사설시설입니다)를 제공하고 있긴 한데, TO가 많지 않은 편이라 신청하시겠다면 서두르셔야 합니다. 제 경우에는 신청하라는 메일을 받고 사나흘 안에 마감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주당<sup>8</sup> 240파운드<sup>9</sup> 정도로 제법 비쌉니다만, 샤워실과 화장실이 방 안에 부속되어있는 것을 감안하면(이런 형태를 엔스윗en suite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렇게 나쁜 가격은 아닙니다(보통 엔스윗룸은 주당 240파운드보다 비싸면 비쌌지 그 이하로는 잘 없었습니다) 위치는 썩 나쁜 편은 아니지만 학교나 주로 가는 건물 방향으로 가는 버스가 근처에 없고, 걸어다니기엔 모호하게 먼 거리입니다(25분~30분 정도).

##### Q. 거주지는 어떻게 구해야 합니까?

방을 구하는 루트는 많은 한국유학생들이 이용하는 웹사이트 "영국사랑(<http://www.04uk.com>)"의 베희시장을 이용했습니다. 이 사이트를 이용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첫째, 한국어로 되어있고 대부분의 경우 한국인 landlord와 계약하기 때문에 언어의 문제에서 자유롭다는 점입니다. 둘째, 주로 한국인들끼리만 쉐어하기 때문에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트러블을 피할 수 있고 생활정보나 한국식 식재료 및 식기도구(전기밥솥이라든가 젓가락-비싸고 파는 곳도 잘 없습니다)를 쉐어하는 데서 오는 편의가 상당합니다. 영국생활 초기의 고립감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물론 영어실력 향상에는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세번째, agency를 통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landlord

---

<sup>8</sup> 런던의 집 값이 워낙 비싸다보니 한국처럼 월세로 받는 곳은 거의 없고 대부분 주단위로 끊어서 계산합니다. 물론, 전세 같은 개념은 당연히 없습니다

<sup>9</sup> 현재 환율 기준 42만~42만 정도

와 계약하기 때문에 별도의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점 등이 있겠습니다. Agency를 통하면 분쟁발생시 agency측에서 개입해서 도와주는 장점은 있겠지만, 반년 가량의 단기 거주를 위해 200 파운드 가량의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크게 느껴지는 일 입니다. 또한 영국사랑이 런던 내 한인커뮤니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영국사랑 내에 안 좋은 소문이 퍼지는 것은 집주인으로서도 피하고 싶은 일인 바 큰 분쟁발생은 드물 듯 합니다.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주로 구하는 주거지는 Flat이라고 불리는, 방 3~5개가 딸린 집 하나를 췌어하는 형태가 됩니다. 보통 single room이라고 하면 싱글 침대가 들어가는 작은 1인용 방을, double room은 더블 침대가 들어가는 상대적으로 큰 1인용 방을, twin room의 경우 2인이 함께 쓸 수 있는 방을 말합니다. 트윈룸의 경우 1인당 지불하는 비용을 명시하는 경우도 있고 2인이 함께 내는 비용을 명시해놓은 경우도 있으므로, 헛갈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Balcony room이라고 해서 원래 발코니나 거실의 일부를 커튼 등으로 분할해서 따로 방으로 쓰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notice'의 경우 계약을 종료하기 전에 landlord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 있도록 미리 알려주어야 하는 의무를 말하는데(보통 4주나 한달 정도 이전), 한국에서는 이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유연합니다만 런던의 경우 방세가 워낙 비싸서 하루 이틀 방 비는 문제에 몹시 민감하기 때문에, 중간에 방을 옮길 일이 생긴다면 꼭 notice 기간을 지켜서 집주인에게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경우 집 문제가 꼬이는 바람에 입국하고도 새 방을 구하느라 2주 정도를 허비했고, 특히 notice 기간을 놓고 주인과 트러블이 생겨 맘 고생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이런 점들이 걱정된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리버티하우스를 쓰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고생 끝에 결국 4인이 췌어하는 flat의 더블룸을 주당 170파운드<sup>10</sup>에 구했고 위치 등을 고려하면 상당히 합리적인 가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조연드리자면 가급적 4인 이하의 췌어가 좋고, 5인 이상 넘어가는 경우 화장실/샤워실이 분리되어있는지, 혹은 2개 이상인지 확인하고 그 이하라면 화장실 사용시간이 겹쳐서 불편할 수 있으니 다른 집을 찾아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면 당연히 있을 lift가 없는 집이 허다하니 몇 층에 위치하고 있는지, 고층이라면 리프트가 있는지도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참고로 영국의 경우 1층은 ground floor라고 부르고, 2층부터 first floor라고 부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런던 센트럴을 걸어다닐 수 있는 위치에서 심각한 결함이 없는 flat 싱글룸이나 더블룸을 주당 160~200파운드 정도에 구할 수 있다면 대충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영국의 경우 건물들이 낡고 오래되어 중앙난방이 되는 집이 많지 않으므로(그나마도 라디에이터 같은 구식 난방시설인 경우가 많습니다) 난방은 어떻게 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런던의 겨울은 한국보다는 훨씬 기온이 높습니다만(12월에도 영하로 잘 안 떨어짐) 건물의 단열이 엉망이라 제가 입국했던 8월 말에도 아침저녁이 쌀쌀해서 두꺼운 솜 이불이 필요했습니다.

---

<sup>10</sup> 당시 환율 기준 30~31만원 정도

위치는 chancery lane역이나 holborn역을 중심으로 한 런던 센트럴이 가장 이상적입니다만, 이 지역은 주거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방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 편입니다. 또 공기에 민감하신 분이라면 자동차 매연 때문에 힘드실 수도 있고요. 주로 영국사랑 기준으로 방이 많이 나오는 동네 중에 제가 추천할 지역은 다음 정도입니다.

#### (1) holborn역 근처

아마 건물 소유주 한명이 방이 빌때마다 글을 올리는 것 같은데, Holborn역과 Russel Square역 사이에 간헐적으로 방이 나옵니다. 주로 오전수업이 열리는 Birkbeck과 오후수업이 열리는 Swan House, 도서관인 Maughan Library, King's컬리지의 본관이라고 할 수 있는 Strand Campus까지 전부 10~15분만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상적입니다. Chancery Lane쪽에서도 가끔 나옵니다.

#### (2) Pimlico 지역

핼리코는 템즈강 북서쪽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거주구역이기 때문에 동네가 몹시 조용하고, 템즈강 이남에 비하면 생활수준이 높고 치안이 잘 되어있는 편입니다. 이 지역을 동서로 나누면 서쪽은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건물등이 들어와있으나 동쪽은 금융계열 건물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어 상대적으로 렌트비가 비싼 대신 건물이 좀 더 신식이고 깔끔합니다. 다만 학교 쪽으로 걸어가기엔 먼 편이고(걸어서 30분 정도), 근처로 한번에 가는 버스도 잘 없기 때문에 교통편의에 있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 위치를 강조하는 것은 시간절약의 측면도 있지만, 대중교통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버스는 최단거리 2500원/지하철은 4000원 정도에 환승이나 학생 할인 없음) 걸어 다닐 수 있는 곳에 사는 것만으로 생활비가 상당히 절약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걸어 다니거나 자전거를 대여하는 것은 그러한 이유에서 입니다.

#### (3) Euston 역 / King's Cross 역 사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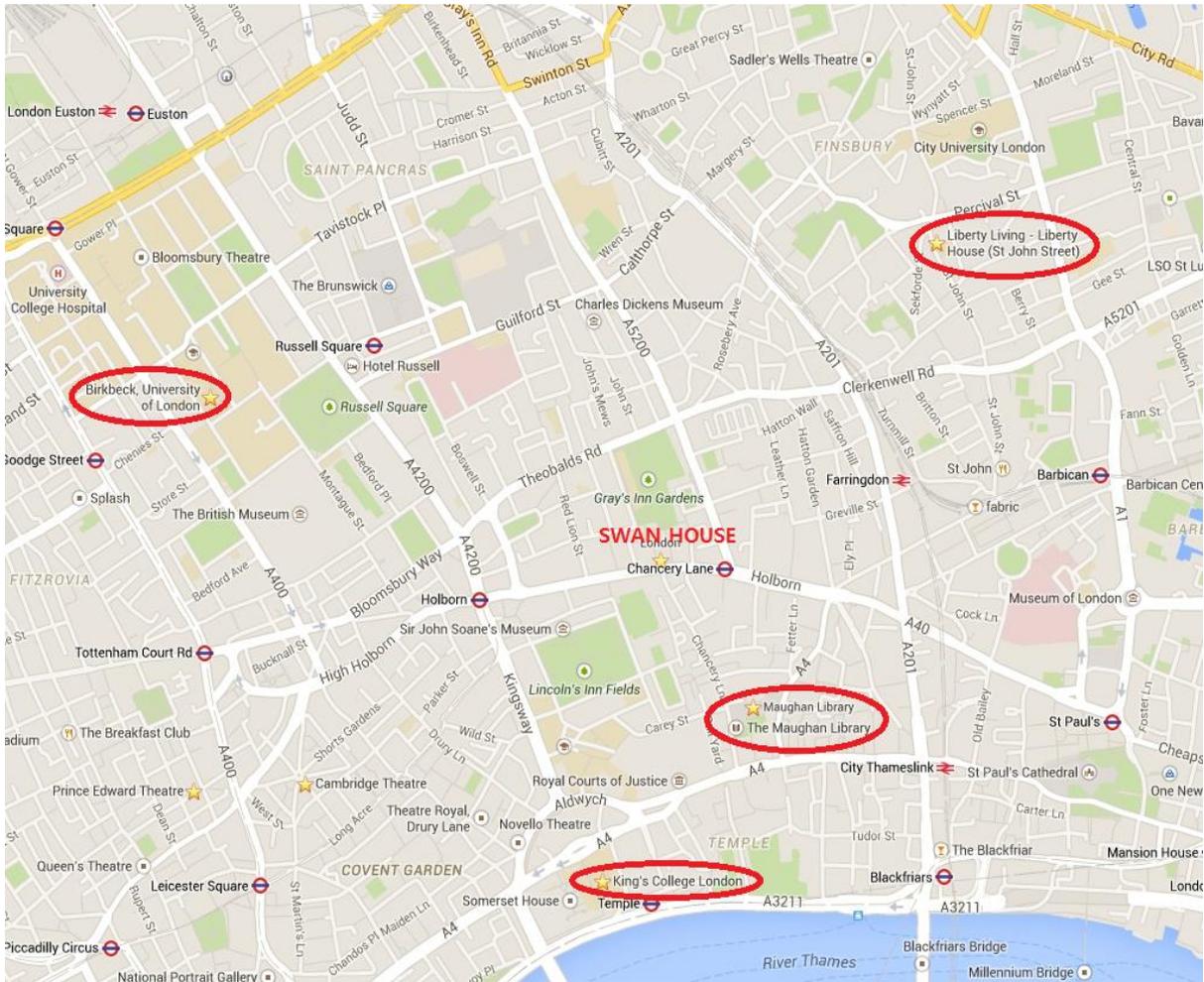
제가 살았던 곳인데, 사실 괜찮은 방이 많지는 않습니다. King's크로스에서 앤젤 역 사이에 매물이 제법 나오는 편입니다만 건물이 심하게 낡았던 경우가 많고, 유스턴 역 북쪽으로도 있습니다만 이 곳은 제3세계에서 온 이민들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이 상당히 낡고 편의시설이 부족합니다. 다만 유스턴과 King's크로스 사이는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에 버스와 지하철, 열차를 이용하기 몹시 편리하고 The British Library가 있기 때문에 공부하기에도 좋은 환경입니다.

#### (4) 비추천 구역

가급적, 특히 여성분이시라면 템즈강 이남쪽- 특히 엘리펀트 캐슬 등으로는 가지 않으시길 권합니다. 이쪽 지역은 템즈강 이북에 비하면 렌탈피가 훨씬 싼 편이라 혹하게 되는데, 직접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 하나를 건넌을 뿐인데 도시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곳은 주로 제3세계 나 동유럽에서 온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 있으며, 슬럼가의 분포와 강력범죄 발생률이 템즈강 북쪽에 비해서 높고, 엘리펀트 캐슬 근처에서는 유학생 살인사건등 흉흉한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물론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인지라 살면 못 살 것도 없겠지만, 남자인 저로서도 야간에 방 구하러 갔다가 을씨년스러운 마을 분위기에 압도당하고 포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 이탈리아인 친구는 이 동네에서 아무 걱정 없이 잘 지냈습니다)

주로 이용하는 건물을 간단하게 지도에 표시해보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언어 문제

이 부분은 개인간의 기본실력과 성취하고자 하는 정도에 대한 편차가 너무 커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외국 생활 등으로 충분한 영어실력을 갖춘 분들은 영어에 관해서는

크게 기대하거나 걱정하지 않을 것이고, 반대로 연세로스쿨에 입학할 정도라면 영어를 한 마디도 할 수 없는 수준의 분은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해외경험이 전무하거나 교환학생 정도의 경험이 있는 정도의 분을 전제하고 쓰겠습니다.

## Q. 수업을 듣기 위해 어느 정도의 영어실력이 필요한가요?

명확한 기준을 말씀드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대부분 갖고 계시는 토익점수가 실제 영어실력을 측정하는데 있어 유의미한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점은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토플의 경우에는 제가 응시한 적이 없어 기준치를 말씀드릴수가 없구요.

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학생이 영어를 모국어나 공용어로 사용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순수 국내파'라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특히 일상 생활에서 쓰이는 영어와 수업에서 쓰이는 학술적 영어는 완전히 별개라고 느꼈는데, 혼자 여행을 하거나 친구들과 일상적인 회화를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향상되어갔지만 수업의 경우에는 그 속도가 훨씬 더 느립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수업의 주제는 주로 법학, 철학, 유럽 중심의 세계 정세, 인권 정도에 집중되는데 그와 같은 주제들을 영어로 접해본 적이 전혀 없다면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학부에서의 경험, 혹은 앞으로 로스쿨에서 개설되는 영어진행수업을 청강이라도 해보시고 그에 따라서 스스로 판단하시라는 말 외에는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방법은, 국제모의법정대회 중 최고급의 권위를 갖는 대회인 Willem C. Vis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Moot(속칭 'Vis Moot')에 참여하면서 법률영어를 접하는 것입니다. 특히 연세로스쿨 내 국제중재학회인 연세IAA에서는 이 대회의 국내판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대학교로스쿨주최 모의국제상사중재경연대회 및 Vis Moot의 자매 대회인 Vis East Moot에 매년 참여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국제중재의 경우 매 학기 변경되는 CTLS 커리큘럼에도 불과하고 항상 개설될 정도로 주요한 주제이고, 실제로 국제법률분쟁에서 주요하게 쓰이는 대안적분쟁해결수단(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이자 CTLS의 각종 수업에서도 끊임없이 거론되는 사안입니다. 저의 경우 이 대회에 참가하면서 얻은 기초지식이 CTLS의 수업에 초기 적응하는데 몹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Q. 영어실력이 어느 정도 향상되나요?

### (1) 기본적인 회화실력

이 부분은 충분히 증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체류경험이 없는 분들이 의외로 고전하

게 되는 부분이 대화에 있어서 기본적인 리액션(예컨대 well, that's cool, great, no worries, absolutely 같은)인데, 이러한 대화 기술은 처음 만나는 상대와 대화하면서 호감을 쌓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면서도 국내에서의 통상적인 외국어 공부로는 체득하기 힘든 점들입니다. 물론, 초반의 반 병어리 상태에서 이런 스킬들을 익히는데까지는 민망하고 멋쩍더라도 꾸준히 대화에 참여하고 들이대는(?) 적극성이 필요합니다.

## (2) 학술영어

기본적으로 CTLS의 커리큘럼은 '법학'으로 한정되어있지 않습니다. 물론 교수들은 법학전공자이지만, 법학 그 자체보다는 본인이 관심있는 분야에 관한 수업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컨대 제가 들은 수업 중에는 페미니즘 관련이라든가, 다수의 공용어를 사용하는 국가 내에서의 언어 사용에 관한 권리<sup>11</sup>에 관한 수업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법률 영어의 사용빈도는 높지 않습니다. 다만, 대학생/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수준 높은 학술적 어휘의 사용이 이뤄지긴 합니다.

단정적으로 말해, 6개월만에 전문적인 학술영어(특히 법률 영역에 특화된)를 자유롭게 읽고 쓸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은 과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법률 영어를 전혀 접해보지 않으신 분이라면 습득의 문제에 앞서 수업을 소화해내는 것조차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예컨대 appeal, merit같은 단어가 법률 용어로 사용될 경우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뜻(매력적이다/관심을 끌다, 가치/장점)에서는 유추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의미(항소, 본안)로 사용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법학을 처음 배우면서 한국어로 된 법학용어들에 익숙해지는데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걸렸던 것을 생각해보시면, 그것을 영어로 습득하는데는 어느 정도가 필요할지 유추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생각하건대, 법학 실력의 향상이 통상 계단형태의 그래프를 그린다는 말처럼 영어도 비슷하다고 보입니다. 아무리 공부해도 따라가기 버겁고, 도무지 늘지 않는다고 괴로워하다가도 나중에 다시 접해보면 확실히 달라진 점이 느껴질 겁니다. 제가 EU법 수업을 한 학기 내내 따라가지 못하고 힘들어했었는데, 원래 한 페이지 읽는데 한 시간씩 걸렸던 리딩 자료를 기말시험을 준비하면서 반도 안 걸리는 시간에 읽는 걸 보고 스스로도 놀랐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Vis Moot를 준비하면서 쌓은 관련영어지식이 예상치 못하게 CTLS에서의 수업에 도움이 되었던 것처럼, CTLS에서 얻은 지식 역시 어느 순간 분명히 필요한 영역이 생길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정도의 사람인 이상, 장래에 국제무대를 배경으로 업무를 하시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 (3) 영국영어?

---

<sup>11</sup> 'Language Right'라는 개념입니다

셜록 등의 영국드라마가 인기를 얻으면서 영국식 영어에 대해 일종의 환상(?)을 품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영국식 영어는 최소한 CTLS프로그램 내에서는 접하기 어렵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수진도 학생들도 대부분 영국 외의 국가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Dickson Poon에서도 참여학생이 있기는 합니다만 극소수입니다) 그러나 역시 이미 말씀드렸듯이 런던 내 다른 대학의 학생 커뮤니티에 참여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본인이 적극성을 발휘한다면 영국영어를 접할 기회도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 4. 귀국 후 학교생활

**Q. 한 학기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본교 수업과정에 무리 없이 따라갈 수 있을까요?**

아마도 이 질문이 가장, 지원자 여러분들에게 있어 중요한 점이면서도 결정을 어렵게 하는 문제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가장 답변 드리기 어려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갈수록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프로그램이 너무나 소중한 경험이었고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저로서도 단호하게 “네, 가능합니다”라고 말씀드릴 자신은 없습니다. 특히 개인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 다른지라 더욱 그렇습니다.

일단 저의 경우를 말씀 드리자면, 사법시험 공부는 거의 하지 않았습지만 어쨌든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했기에, 그 점만을 믿고 휴학 없이 졸업까지 강행했습니다. 힘들었다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어쨌든 무사히 졸업시험을 통과하였고 변호사시험도 치뤘습니다. 다만 저에게는 교환학생 파견으로 인해 졸업 혹은 변호사시험 합격을 1년 유예하게 되더라도 감내하겠다는 개인적인 각오와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설령 변호사시험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제게는 감당할 수 있는 범위내의 일입니다만, 모든 사람이 저와 같을 리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질문하고 판단하셔서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실 개인적인 견해로는 CTLS 파견 전후 양 학기를 휴학하는 방법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힘든 로스쿨 1년차 과정을 마치고 심신을 단련하면서 부진했던 과목을 보충하고, 교환학생 생활에 대비하여 영어 공부를 하며 한 학기를 보내는 것입니다. 귀국 이후에는 반 년동안 몸과 마음을 다시금 수험생에 적합하도록 맞춰나가면서 추후 공부해야 할 과목을 선수학습하여 다음 학기에 복학한다면, 안정적이면서도 우수한 학교생활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반드시 3년의 정규기간 내에 학교생활을 마치길 원하신다면 불가능한 일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연세 로스쿨 학생들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매년 전국 최고 수준을 이어왔고, 변호사시험과 직결되는 수업들은 3학년 때 집중되어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2학년 한 학기의 공백은 충분히 메울 수 있다고 봅니다. 저 역시도 불안한 심정으로 변호사시험을 치킨 했지만 발표가 나지 않은 현재로서는 결과를 속단할 수 없고,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도 아닙니다. (또한 그렇게 됨으로써 여러분에게도 희망적인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된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겠습니다)

관건은 귀국 후 학기 시작 전까지의 시간을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하시는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3학년 1학기 복학이라면 반드시 민사법을 전체적으로 학습하시고 민사소송실무, 민사법응용과 같은 핵심과목의 대비에 힘쓰십시오. 이 두 과목은 민사법 전체를 아우르는 과목인데다

3학년이 되어서야 처음 맞닥뜨리는 기록형 과목(물론 2학년 2학기에 형사소송실무수업에서 형사 기록형 공부를 하게 되겠지만, 2학년 2학기 파견의 경우 이 과목도 들을 수 없게 됩니다)이기 때문에 그 유형에 적응하지 못해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번외로, 2016년 1학기 부로 졸업생의 CTLS 파견이 가능해지면서 이 문제를 회피할 수 있게는 되었습니다. 다만 변시 합격 후에도 변협연수 혹은 취업으로 바쁜 시간을 보내야한다는 점에서 기회비용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할 것입니다.

### **Q. 학교에 복학신청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아닙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규학기를 이수하신 것이므로 별도의 행정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CTLS에서 개인주소로 발송해주는 성적표(본교 주소로도 발송해주었던 것 같은데, 본교에서는 받지 못하였다고 들었습니다)를 제출하고, 파견대학 학점인정신청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